

갈 길 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뉴스 초점 /

운영 국가기관으로 일원화
예산 매칭 구조 개선해야
전당장 공백·직급 상향 시급
광주시 컨트롤 타워 미흡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현재 '일부 위탁'에서 '전부 위탁'으로 결정하는 시기가 내년 4월로 다가오면서 광주시가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 하자'는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문화전당을 법인화 할 경우, 향후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워 콘텐츠 창작·제작 감소 등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 문화전당 활성화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이 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광주시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예산 매칭 구조'를 손봐야 문화전당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 향후 약속한 1조4976억원을 오는 2023년까지 모두 지원하더라도 광주시가 매칭해야 할 6794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비를 되돌려 줘야 하기 때문에 문화전당을 제때 활성화할 수 없는 구조다.

광주시는 8일 "최근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 하자는 계획을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으로 일원화' 방안은 그동안 정치권 등을 통해 수차례 논의됐지만, 광주시가 공식 입장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에 제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계획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아특별법) 유효기간 연장과 국비 집중 투입도 함께 포함돼 있다. 애초 오는 2023년~2028년이었던



광주세계수영 하이다이빙 경기장 공사 현장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65일 앞으로 다가온 8일, 하이다이빙 종목이 펼쳐질 광주 동구 서석동 조산대 운동장에 대한 수조와 점프대 등 경기시설이 공정을 80%를 기록하며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아특별법 유효기간을 문화전당 건립 지연 등을 감안해 오는 2026년~2031년으로 늘리자는 내용이 이 계획에 담겼다. 또 2004년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애초 국비 사업비의 45%인 1조2703억만 집행됐고, 남은 5년 동안 1조4976억원의 지원이 집중될 수 해 달라는 건의도 덧붙였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전당에 정부의 관심이 줄어들어 애초 계획사업비 5조2912억원 대비 지난해까지의 집행

은 27.5%인 1조4528억원(국비 1조2703억원, 시비 1102억원, 민자 723억원)에 머물고 있다.

예산 지원도 문제지만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통합 외에도 문화전당의 전당장 공백 장기화, 전당장 직급 상향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그동안 문화전당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상향하자는 여론도 적지 않아 국회 차원의 논의와 추진에 대한 지역 여론도 높다. 현재 문제부는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통합을 위한 조직 진단 용역을 오는 9월까지 진행 중이지만, 용역 결과에 따른 통합 방식에 대한 향후 논란도 우려된다.

지난 2015년 11월 개관한 문화전당이 지난 3년 동안 문화 예술기관으로서의 운

영과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하다.

문화계 일부에서는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문화전당 현안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 문화경제부시장제를 도입했지만, 특별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문화전당이 제때 건립되지 못했고, 과거 정권의 무관심으로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아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친환경자동차·인공지능 등 11개 광주시, 미래 대표산업 집중 육성

광주시에 친환경자동차·에어가전 및 공기산업·인공지능 및 드론 등 11개 산업을 광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표산업으로 정하고 집중 육성한다. 이들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노사상생에 기반한 저비용 고효율 산업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 산업융합단지·데이터플랫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도 제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선7기 산업비전 및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11대 대표산업은 ▲친환경자동차산업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광융합산업 ▲에너지 및 수소산업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 ▲스마트뿌리산업 ▲인공지능 및 드론산업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관광산업 ▲김치 및 음식산업 등이다.

이 시장은 "11대 대표산업은 지역의 축적된 기술·인력·인프라 등 역량을 결집하면, 급변하는 기술혁신시대에 대응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신성장 산업군 중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자동차산업은 '현대차 완성차 공장 투자협약'이 체결된 만큼,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을 조기에 설립하고,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및 부품인증센터 구축 등을 통해 광주를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산업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깔려있다. 에어가전·공기산업은 지역 백색가전 기업과 인프라 혁신을 통해 자생적인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광주를 공기산업 중심도시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산업의 경우 지난 2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등 지역 주력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집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노린다.

이 시장은 또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및 공장 조기 착공(6월 법인 설립·11월 착공) ▲광융합산업과 공기산업의 예타사업 추진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어등산 관광단지 착공,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조기 신축 등을 올해 추진할 중점 사업이라고 밝혔다.

광주형일자리 투자자 유치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산업은행장과 만나 투자 관련 면담을 진행한 바 있으며, 광주보다 타지역에서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기업(7기) 위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선 상태이며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투자자 설명 간담회나 사업제안서 공개 등 여러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전남, 화염사 등 문화재 6곳 정밀안전진단 필요

교량 포함 24개 건축·시설물
2019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전남지역 구례 화염사·운흥정·방호정 등 문화재 6곳과 저수지 4곳, 교량 3곳 등 24개 건축·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지난 2~4월 실시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건축·시설물 등 6499곳 중 1162곳에 대한 보수보강과 24곳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문화재의 경우 대원사 극락전과 구례 화염사, 구례 운흥정, 구례 방호정, 강진 향교, 화순향교 대성전 등 문화재 6곳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

다. 화염사는 보재루·천왕문·금강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화순향교는 정밀안전진단과 기동교체 및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 소라면 복산리 농업용저수지 복산제는 농경지 누수가 의심되는 만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거쳐 확인해야 하고, 장성군 외동저수지에 대한 안전성평가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 연향교교와 유서1교, 율곡교도 일부 구간 파손 등으로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아파트 190곳과 소규모 공공시설 171곳, 급경사지 128곳 등 1162곳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강진서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열린다

FISU 승인 국제대회
내년 10월 50개국 참가

강진군은 내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는 내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열린다.

다. 이 대회는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가 승인해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대학생 역도 대회다. 역도 단일 종목으로 남자 10체급, 여자 10체급으로 진행된다. 세계 50개국에서 500여 명의 선수를 포함한 1500여명의 임원이 참가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5·18 세계에 알리는 전 일본 기자 ▶6면

굿모닝 예향 - 다크 투어리즘 ▶18면

류현진 4피안타 무사사구 완봉승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LIMITED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키온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